

장마철인데...지하철 공사장 인근 주민 ‘전전긍긍’

SOCIETY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아파트 바닥·벽면 곳곳 균열·땅 꺼짐 피해 잇따라
매번 임시조치만 반복...“주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비가 오면 균열과 땅꺼짐이 더 심해집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광주지역이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건물 내·외부 바닥과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단지 내 곳곳에 땅꺼짐 현상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시행사는 임시조치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주차장 한쪽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방수포가 모래주머니로 고정된 상태로 깔려 있다. 갈라진 바닥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 지반이 약화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수포를 걷어내자 20여m의 땅은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져 있었고, 평평했던 바닥은 15~20cm 정도 내려앉은 상태였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시멘트로 틈을 메웠는데 올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갈라진 틈 사이는 텅 비어있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 보였다.

특히 주차장 균열이 아파트 내부까지 연결되고, 벽 곳곳에 금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도로를 비롯해 상가 등과 인접해 있어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단지 주변 화단에 깔린 방수포 곳곳에 빗물이 고일 정도로 폭 꺼져가나 현관문과 입구에 발생한 단차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



24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내·외부 바닥과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단지 내 곳곳에 땅꺼짐 현상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다.

이 아파트에서 10여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지하철 공사 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다. 며칠 전 비가 내린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비가 오면 흙이나 땅이 약해지면서 건물 자체가 내려앉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나온 이들은 아무도 없다.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안이 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지반 침하와 담장 균열 피해 관련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관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공사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노후화의 영향도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지하철 공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계속 관리를 추가 설치해 추측 관찰과 함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전문가 자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보강 없이 임시 조치만 반복하다 보니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설치된 14개의 계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로 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부분은 임시 조치를 취하고, 오는 11월 중 해당 구간의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되고 지반이 안정화 되면 아파트 화단과 주차장 침하 구간의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

GIST·전남대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G-STAR 프로그램 가동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차세대 의사과학자 공동 양성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GIST에 따르면 두 대학이 공동 기획한 ‘G-STAR(Global Scientist Training for Advanced Research)’ 프로그램 개발 과제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추진 중이다.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를, 전남대 의과대학 정재욱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를 맡았다.

두 대학은 올해부터 4년간 총 3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60명 이상의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메디컬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G-STAR 프로그램’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융합형 인재, 특히 임상과 기초과학을 아우르는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이다.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정립한 뒤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해 K-바이오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의학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지만, 국내에는 연구 중심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약 3300명의 의학계열 졸업생 중 기초의학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GIST와 전남대는 의료 현장의 통찰력을 과학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이어 주는 ‘양방향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G-STAR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GIST는 AI·의생명공학·우주의학 등 첨단 융합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 중심의 교육 기반을, 전남대 의과대학은 면역치료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

G-STAR 프로그램은 △의사과학자-의공학자-의생명과학자 간 융합교육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운영 △미니학위 과정 개설 △해외연수 및 성과 교류회 개최 △6대 특화 분야(의공, AI, 면역치료, 우주의학, 바이오인포매틱스, 뇌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R&D 프로젝트 수행 △실습실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연구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GIST와 전남대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니학위 과정을 통해 의과학 및 의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내역은 학위증명서 또는 성적표에 표기된다.

또 두 대학에 각각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학사 및 연구 행정의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 참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진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비상무용단 ‘청명’ 작품 쇼케이스 24일 오후 나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혁) 해인4관 소극장에서 비상무용단 ‘청명’ 작품 쇼케이스와 워크숍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학교를 방문한 몽골 올란바토르 ORGL 학교 학생들이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된 나주 비상무용단 공연을 관람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한 30대 벌금형 재판부 “인간 기본적 공감 결여...엄한 처벌 마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한 3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 문흥1동 자택에서 179명이 승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

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관련 기사에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광주지역위원회 간부’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뉴스에 박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은 국민이 함께 하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면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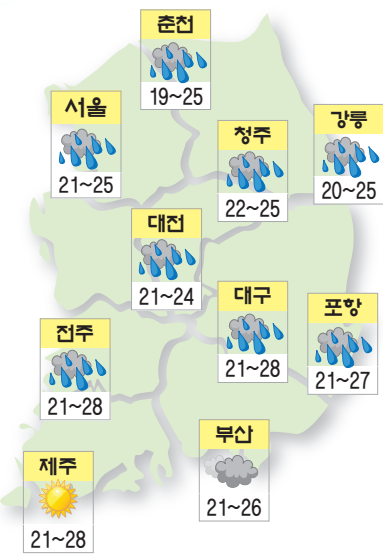
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자가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무안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19 달출 04:28
☁️ 예보 19:51 달몰 20:05



광주	☁️	20~26
목포	☀️	20~25
여수	☁️	20~25
순천	☁️	20~26
구례	☁️	20~26
광주	☀️	20~26
임도	☀️	20~27
흑산도	☀️	19~25
고흥	☁️	20~27
진도	☀️	19~26

목포	밀물(고)	01:52 / 13:45
	썰물(저)	07:15 / 19:11
여수	밀물(고)	08:43 / 21:29
	썰물(저)	02:47 / 14:44

위조지폐 출력·사용 ‘유죄’

만년필 ○컬러레이저 복합기로 출력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지난해 초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사용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기 위해 유사 지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위조지폐를 20장을 실제 사용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이 위조지폐는 타인에게 전달돼 택시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시중에 유통돼 실제로 경제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